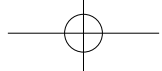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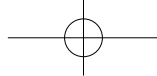
Place

work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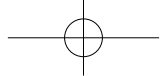
Write
your
[]





21세기에도 누구나 한 가지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슈가슈가문>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무지갯빛 하트로 나타나는데, 주인공 '쇼콜라'가 주문을 외치면 그 하트가 튀어나와 손에 잡힌다. 이렇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마음 조각에 물성을 부여하는 마법. 우리는 이제 그 마법을 기록이라고 부른다. 일기, 편지, 필사 등 모든 흔적에는 마음이 담기기 마련이다. 마음을 뚫 떼어내 종이에 옮겨 놓고 나면 더 진솔한 나를 마주하게 된다.

'기록은 손끝에서 시작하는 나다움'이라고 말하는 문구 브랜드 '라잇요라이프(writeyolife)'가 시청역에 작업실을 열었다. 정식 명칭은 '워크룸'으로, 송예원 대표(이하 '라잇')의 색이 짙게 물든 아지트 같은 곳이다. 건물 10층에 도착해 여기가 맞는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면 잘 찾아간 것. 우리의 쓰는 삶에 끼여히 함께할 라잇요라이프, 그 작은 워크룸의 문을 두드려 보았다.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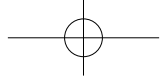
나, 너, 모두의 워크룸

라잇요라이프는 기록 애호가들을 위한 문구류와 다이어리, 엽서 등을 판매한다. 그 출발 점은 라잇이라는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매일 일기를 쓰며 생긴 습관이 자연스레 그의 삶에 스며들었고, 그가 나누는 종이 위의 것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다. “흘러가며 살다 보니 취미가 업이 됐어요.” 라잇의 말에는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 특유의 애정이 어려 있었다. 그의 모든 일상이 펜을 쥔 손끝에서 시작된다. 라잇이 꿈꾸는 공간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쓰고 있는 곳. 그 꿈을 작게나마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워크룸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이곳은 작년 10월부터 손님들에게 ‘쓰는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이곳의 이름은 쇼룸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워크룸. 공간을 반으로 나눠 한쪽은 라잇이 실제 작업하는 곳, 다른 쪽은 손님을 위한 곳으로 꾸몄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 공간에 생기가 흐른다. 흰 반투명 커튼을 살며시 젖히면 사적인 창작의 열기가 훑 끼친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커튼 한 장으로 공과 사의 선을 그어 놓다니. 여러모로 열린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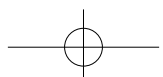
이곳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다. 워크룸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작업실에 온 듯한 시간을 만들어준다. 여기 앉으라며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 같은 자리 ‘기록석’에 편안한 시간을 누리다 가라는 메모를 곁들였다. 제품을 구매하면 “쓰고 가실 건가요?”라는 생소한 질문이 돌아온다. 머뭇거림도 잠시,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 생각에 잠겨 있던 한 손님은 펜을 들어 방금 산 엽서를 빠르게 채웠다. 그 순간만큼은 워크룸이 그의 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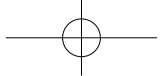


Place



18





Place



마음의 품이 넉넉한 곳

화려하고 개성 강한 공간도 좋지만, 나는 소탈하고
가식 없는 공간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 워크룸의
구석구석은 머무는 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래서 첫 방문인데도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음
이 편안해진다. 진열된 책들 앞에는 편하게 열람해
보라는 메모가 있고, 제품을 직접 써볼 수 있는 구
역도 마련되어 있다. 그 옆에 붙은 작은 종이는 워크
룸 주변 가볼 만한 곳들을 표시한 손 그림 지도.
작은 선의들이 모여서 큰 다정함으로 다가온다. 배
풀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가 담긴 곳이다.

대부분의 제품 옆에는 라잇이 직접 손으로 쓴 사용
예시를 두었다. 친근한 낙서 같은 낱것의 글이다.
예쁘게 써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거나 기록을 어려
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말해주
듯이. 누군가의 방을 엿보는 기분이 들 정도로 내
밀한 내용이다. 창가에는 라잇의 옛 다이어리들이
스크랩북 형태로 재탄생해 놓여 있다. 구경하던 손
님들도 그냥 지나치기 못하고 그의 조각들을 가만
히 읽어본다. 워크룸을 한 바퀴 둘러본 후에는 이
곳의 주인과 오랜 친구라도 된 것처럼 내적 친밀감
을 가득 쌓을 수 있다.



테이블 한쪽에 놓인 워크룸 방명록은 라잇의 재산이자 보물이다. 한 줄 남기기 전에 앞 내용을 훑어 보았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머물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통 분모를 가진다. 각기 다른 글씨체로 완성되어가는 한 권의 책 같기도 하다. 이곳에 방문한다면 마치 조각보 같은 방명록에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기고 오길 바란다.

83

에디터 pick 제품



① 복러버 마스킹테이프

독서와 기록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스킹테이프. 색색의 책 모양이 나열된 디자인이다. 책등에 제목을 쓰거나 쌓아 올리는 식으로 붙여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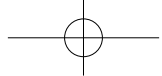
② Wishful 다이어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년 다이어리. Wishful 다이어리는 작은 소망이 미래에 대한 무궁무진한 상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다. 그 소망을 손으로 도박 도박 적으면 한 해가 끝날 때쯤 현실이 되어있을지도 모른다.



③ 투명한 마음 편지 세트

편지는 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느리고 낭만적인 방법이다. 반투명 트레싱지 봉투를 사용해 발신인의 꾸밈 없는 진심이 가 닿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봉투 양옆의 실 디자인은 직접 수작업으로 박음질한 것.



Place



나만의 속도

기록석에 짐을 풀어본다. 워크룸의 기록석은 창을 보고 있는 두 자리와 갈색 테이블을 둘러싼 서너 자리 정도. 창가 자리에는 주위 소음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헤드셋이 갖춰져 있고, 필기구와 스티커, 이면지도 넉넉해서 몸만 와도 걱정 없다. 테이블 앞에 앉아 펜을 드니 따뜻한 물과 비스킷을 대접받았다. 정말 뭐라도 쓰고 싶어지는 공간이다. 아무거나 적고 싶지 않아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생각에 잠긴다. 가끔은 나 자신보다 타인을 떠올리는 것이 마음을 더 말랑말랑하게 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같이 있을 때면 세상이 자꾸만 우리 둘로 좁아지는. 그 친구를 향한 마음 중에서 예쁜 것만 골라내 떼어낸 뒤, 빈 엽서에 넘치기 직전까지 채워 담는다. 마지막 마침표 아래에는 날짜 스탬프를 꼭 찍는다. 손가락 걸고 약속, 도장, 복사까지 아무지게 하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한껏 물러진 마음으로 'My writing manual'을 펼친다. 이곳에서 직접 쓸 수 있도록 구비된 작은 종이 책자다. 내 마음이 반응하는 글 찾기, 지난 일주일에 제목 붙여주기 등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필기구를 고르며 시작해서 비치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오늘을 남겨보며 끝난다. 종이 위에서 나누는 대화.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나 자신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나만의 속도대로 기록하고 계획하는 편안한 시간을 누리길 바란다는 안내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 하면 나만의 속도는 뒷전이 되기 일쑤다. 출근길 지하철에서조차 빠른 하차 칸을 찾아 뛰게 되니까. 여섯 번째 단계로 오늘 하루에 대해 적는 동안 나를 둘러싼 시간은 분명히 느리게 흘렀다. 느린 속도가 이렇게 반갑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다.



“무언가 쓰고 싶을 때 떠오르는 공간”, 워크룸이 손님들의 기억에 어떤 곳으로 남았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다. 이곳에 머무른 시간이 그들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집에 돌아가서도 꾸준히 쓰는 일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지금은 목요일과 금요일 정해진 시간대에만 손님을 받지만, 추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난다면 운영 요일을 늘릴 생각도 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문지방이 닳아갈 이곳의 미래가 기대된다. 한결같이 배려가 가득할 공간 구석구석도. 작고 다정한 아지트, 워크룸이 지향하는 ‘쓰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걸 어준다. 공간을 나서는데 금세 또 무언가 쓰고 싶어졌다. 아, 기록이라는 마법에 단단히 매료된 모양이다.

INFO

Instagram | @writeyolife.official
 Website | smartstore.naver.com/writeyolife
 Address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길 26
 풍산빌딩 1003호